

이상 「거울」의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한 인지적 고찰

소 필 균(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자아의 다항 혼성적 인지지향 |
| 2.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 | 5. 맺음말 |
| 3.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 | |

국문초록

이상 「거울」에 관한 기존 연구들 가운데 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이제 자아 인식을 표상하는 시인의 대표적인 시의 위상에 맞게 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시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인지시학을 바탕으로 하고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인지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인지지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초현실적인 특성을 보이는 텍스트의 독특한 인지체계를 도출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표상된 ‘거울’은 심리적 반영물로서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의 자아를 비추어주고 있다. ‘거울’은 배경이며 거울에 표상되는 거울 속의 ‘나’는 초현실적 전경으로 기능하여 자아인식을 위한 인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텍스트는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로 이항 대립되는 인지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인지구조를 기저로 참자아의 이해와 합일에 이르려는 혼성적 인지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텍스트는 이항 대립적으로 화자가 거울 속의 ‘나’를 인지하지만 결국 거울 속의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며 이해와 합일을 추구하

는 인지지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심리적 반영물로 보고 있는 ‘거울’의 속과 바깥은 피비우스 띠의 속과 겉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거울의 속과 바깥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게 보인다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거울이라는 반사 물체에 비치는 형상은 방향이 다르면서도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는 원리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달리 그 이면의 본질이 같다는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핵심어 : 이상, 「거울」, 인지시학, 인지심리학, 그레마스, 사각기호, 전경, 배경, 주의, 문체 이탈, 초현실주의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 「거울」을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과 기호학(Semiotics)의 그레마스(Greimas) 사각기호(Semiotic square)를 적용해서 텍스트의 구조와 지향하는 바를 인지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거울」을 인지시학에서 적용되는 인지심리학의 개념들을 원용하고 그레마스 사각기호로도 해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텍스트를 단독으로 한 연구물은 없었으며, 그 인지적 작용을 고찰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기호학을 적용한 인지적 고찰은 텍스트의 의미생성행로를 밝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거울」은 자아 인식을 표상하는 이상 시의 대표적인 시편으로서 무엇보다도 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이 연구는 인지시학을 토대로 하고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하는 인지기호학적 방법으로 텍스트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구축하고 인지지향으로 나아가는 분석 과정을 통해 초현

실적인 특성을 보이는 텍스트의 인지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텍스트는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의 접촉과 소통이 부재한 상황으로 합일되지 못하는 인지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중심 제재 ‘거울’은 자아의 심리적 반영물이자 배경으로 기능한다. 거울에 표상되는 거울 속의 자아는 초현실적 전경으로 기능하며 텍스트 인지구조를 구축하는 인지 대상이다.

이상은 모더니즘 경향의 초현실적 시작법으로 자아 구현을 추구했다. 시인은 「거울」 시편에서 심리적 반영물 ‘거울’을 통해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의 대립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있다. 실험성이 강한 낯선 시작법으로 구현된 텍스트는 의미와 형태 구조에서의 시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전경과 배경의 개념은 기본적인 심리 패턴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의 기초를 형성한다.¹⁾ 초현실주의는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서구를 휩쓴 예술운동으로 무엇보다 혁신적인 시적 실험을 통해 비롯되었다. 무의식에 가깝게 쓰는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표현 미학을 파괴하는 것은 초현실주의에서 선호하는 전략이다.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을 근본적으로 과학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현상으로 이해하고, 의식 경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요즘의 인지과학은 지각, 기억, 상상 등의 기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에 이르고 있다.²⁾ 인지과학은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진취적인 시도인 것이다.

인지심리학은 인지과학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정신작용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간의 일에 그 정신작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일컫는다. 그 연구의 대상은 지각, 기억, 언어구사, 추리 등의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진다.³⁾ 인지심리학의 원리인 전경과 배경의 개념은 인지언

1) Gerrard Steen·Joanna gaebiseu, 양병호 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문화사, 2014, 21면.

2) José Luis Bermúdez, 신현정 역, 『인지과학』, 박학사, 2012, 572~573면.

3) 박권생, 『인지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6, 5면

어학에서 기본적이고 강력한 개념이며, 정밀한 분석을 위한 상세한 문법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⁴⁾ 텍스트 내의 전경화는 하나의 요소에 주의를 끄는 일반적 언어 용례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탈(deviance)은 문학과 문학적 가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⁵⁾ 인지심리학에서 주의(attention)는 의식/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자극 중에서 특정 자극을 선별하고, 선택된 자극에다 우리의 인지자원 또는 정신적 노력을 집중하는 일을 일컫는다.⁶⁾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인지심리학적 원리의 양상에 주목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보고자 한다.

기호는 대상을 이해하는 개별적인 요소이며 인식 작용이다. 문학 연구에서 기호를 사용한 방법은 인식의 틀을 벗어나 생산적으로 의미를 산출하는 외연의 확장이 유연하다. 기호학은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며 유연한 사유 방식이다. 기호학이 대상을 도식화하는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시각이다. 기호학은 인지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부분을 넘어서 지각의 차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⁷⁾ 기호학의 이론을 문학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호학에서 의미론을 완성한 그레마스가 구상한 의미작용은 단지 의미가 아니라 의미작용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각기호는 의미작용이 심층에서 표층을 거쳐 담화 서술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의미생성행로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텍스트 분석 틀이다. 사각기호에 의해 구현된 의미작용은 중층적이며 그 의미 구조는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확장적이다. 사각기호 의미생성행로는 두 개의 양향대립이 연루하여 상반, 모순, 함의 관계로 구축되어 도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시학과 기호학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텍스트의 인지기

4) Peter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35면.

5) Peter Stokwell, 위의 책, 37면.

6) 박권생, 앞의 책, 77면.

7) 송효섭, 『기호학』, 한국문화사, 2010, 7면.

호와 인지구조 나아가 인지지향으로 확장되는 인지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인지시학의 토대를 이루는 인지심리학의 원리와 개념을 사용한 텍스트 분석과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한 텍스트의 의미생성행로를 구현해서 그 인지적 작용을 보고자 한다.

2.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

이상의 시 「겨울」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텍스트에 표상된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 양상을 고찰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인지심리학의 원리인 전경과 배경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의’, ‘문체 일탈’의 개념 등을 적용해서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를 표상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초현실적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체 일탈은 전경화된 이미지나 개념으로 초현실적 전경을 창조한다. 인지심리학은 문체 일탈을 연구하기 위해 음성학, 필적학, 운율학, 형태론, 어휘론,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담화론의 관점으로 구분한 관점별 목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체 일탈은 초현실주의 글쓰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거슬리는 이미지나 개념을 전경화에 사용하여 초현실적 전경을 창조한다.⁸⁾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보이는 텍스트의 분석을 위한 기본 단계는 자아의 초월적 관점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자아의 자아 초월적인 인지 시각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하나의 기호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그 인지기호를 탐색해보는 것이다. 텍스트를 이루는 인지기호를 살펴보는 일은 이상의 시정신과 시작법의 기본 토대가 되는 기호적 양상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겨울」 시편의 가독성을 위해 현대어로 표기한 원

8) Gerrard Steen·Joanna gaebiseu, 앞의 책, 26~27면.

문을 인용하며, 시편 분석의 서술에서는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한다. 논의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각 연과 행에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다.

- (1) ①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②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 (2) ③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④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3) ⑤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⑥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 (4) ⑦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⑧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 (5) ⑨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⑩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6) ⑪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⑫또꽤닿았소
⑬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편씩섭섭하오

- 이상 「거울」⁹⁾

위 이상의 시 「거울」의 언어 표기는 띄어쓰기 규범을 지키지 않고 단어를 붙여 쓰고 있다. 이는 규범에 대한 거부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가 지향하는 바를 유추하게 하는 인지기호로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표기는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를 표상하는 문체 일탈적 인지기호라고 할 수 있다.

9) 권영민, 『이상 전집1』, 태학사, 2013, 32면.

배경으로 설정된 조용한 거울 속 세상에 초현실적 자아가 전경으로 드러나 있으며, 텍스트에 일련의 배경으로 설정된 거울 속 초월적 자아가 다양한 주의를 끌며 나타난 전경의 교체는 초현실적 인지상황을 지속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띄어쓰기는 지켜야하는 규칙이자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은 실험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한 시인의 의도적인 기법이다. 이처럼 텍스트에 드러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문체 일탈은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를 표상하는 것이며, 초월적 인지상황을 부각하고자 하는 하나의 인지기호로 작용한다.

텍스트에서의 전경화는 반복과 특이한 이름, 혁신적 기술, 창조적 통사 배열, 말장난, 각운, 두운 운율 강조, 창조적 은유 사용 등 다양한 장치에 의해 구현된다. 이 모든 것은 텍스트의 나머지 요소를 교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요소를 전경화하며, 하나의 요소에 주의를 끄는 일반적인 언어 용례로부터의 일탈로 간주한다. 일탈(deviance)은 문학과 문학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텍스트에서 조직화하는 요소로 결정되거나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자질은 우세함(dominant)이라고 한다. 우세함은 텍스트의 형식적 자질로 일종의 ‘초(超)전경화된’ 전경이다. 문학 텍스트의 나머지 요소가 이 우세함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조직화된다.¹⁰⁾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이상의 시의식이 텍스트에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자아의 양립은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의 양상으로 구현된 것이다. 텍스트는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를 초월적으로 인지하는 방법은 인지심리학의 ‘주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며, ‘주의’의 방법을 통해 텍스트의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 자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지시학에서 ‘주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

10) 우세함(dominant)은 운율 패턴, 두운, 영상주의, 부조리한 상황, 극 속 침묵도 될 수 있다(Peter Stokwell, 앞의 책, 37면).

다. 독자의 ‘주의(attention)’는 언어적 자질의 현저성에 대한 대응물이다. 문학 작품 읽기는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서 주의를 새롭게 하는 과정과 연관되는 역동적인 체험이다. 문학 작품 읽기에서 인지심리학은 여러 다양한 국면의 유용한 주의를 구별한다. 주의를 무차별적이지 않고 선택적인 현상이다. 주의를 받기 위해 시야의 어떤 요소는 선택되며, 이러한 경우 그것은 전형적으로 전경의 요소가 된다. ‘주목’이라는 은유는 인지심리학자에게 주의의 초점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그것은 무엇을 주목하든지 보는 사람이나 독자의 모든 관심과 정보 처리의 초점을 받게 된다. 경험에 기초한 모든 기대와 주의를 전경의 활동을 따라가기 위해 암시를 받고 준비가 될 것이다. 인지심리학 이론은 시야의 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섯 개의 일반적 논제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인지시학의 문학 맥락에 적용 될 수 있다.¹¹⁾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논제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요소 또한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로서 작용한다.

1. 공간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2. 사물은 무엇인가?
3. 무엇이 주목의 양상을 결정하는가?
4. 주의 초점 내에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 사물 사이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¹²⁾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위의 논제들은 텍스트의 인지체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지기호로서 작용한다. 논제 1의 적용은 텍스트에 표상된 공간으로 심리적 반영물인 거울을 일련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며, (1)연에서 주의 초점을 강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논제 2는 거울 배경에 거울 속 자아가 전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적용되며, 거울 속의 자아는 현실적 자

11) Peter Stokwell, 위의 책, 43면.

12) Peter Stokwell, 위의 책, 44면.

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로 보인다. (2), (3)연은 거울 속 초월적 자아의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논제 3의 주목 대상은 신체 부분 중 들고, 접촉하는 ‘귀’와 ‘손’의 인지감각으로 나타나며, 초월적 자아와의 배치 상태를 강화하고 있는 인지기호이다. 논제 4는 주의 초점 내에서 두 자아가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논제 5는 현실적 자아가 자아 초월적으로 인지하는 인지기호를 감각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인지심리학 이론 논제를 적용한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는 텍스트 분석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토대가 된다.

3.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

이상의 「거울」은 자아가 병치된 이항 대립적 구도와 거울이 배경으로 감지된 인지상황에서 진경으로 등장하는 거울 속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의미 구도를 해석하려는 인지주체의 의식이 표상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에 주목하여 현실의 ‘나’가 거울 속의 ‘나’를 인지하는 양상과 거울속의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양상의 두 축으로 인지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거울’을 심리적 반영물로 보고, 인지주체의 인지심리를 투사한 형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현실의 자아와 거울 속의 자아가 빛의 반사 현상처럼 반대의 양상을 보이지만 닮았고, 닮았지만 접촉과 감지가 안 되고, 교감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복잡다단한 인지심리를 기저로 한다는 점을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해서 도해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구성은 (1)~(3)연, (4)~(6)연의 두 부분으로 의미 단락이 구축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부는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의 자아를 인지하는 상황이고, 후반부는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와의 관계를 인지한다는 설정이다. 이러한 인지구조가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어떤 인지적 작용을 하고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해보는 일은 인지체계를

고찰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다음 표는 텍스트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리한 인지정보이다.

〈표 1〉 이상 「거울」의 인지정보

| 연 | 행 | 인지 배경 | 인지 전경 | 인지 방향 | 인지 감각 | 인지 행위 | 인지 심리 | 인지 의미 |
|-----|---|----------|----------|----------|----------|----------|----------|------------------------|
| (1) | ① | 거울 | 소리 | 안 | 청각 | -소리 인지 | 적막감 | 거울 속 소리 없음 |
| | ② | | | | | | | |
| (2) | ③ | 거울 | 귀 | 안 | 시각 | 귀 인지 | 딱함 | 거울 속 나의 귀는 듣지 못함 |
| | ④ | | | | 청각/시각 | | | |
| (3) | ⑤ | 거울 | 손 | 안 | 시각 | 손 인지 | 안타까움 | 거울 속 나의 손은 왼손잡이 |
| | ⑥ | | | | | | | |
| (4) | ⑦ | 거울 | 나 | 밖 | 촉각 | -나 접촉 | 서운함 | 거울 속 나를 만지지 못함 |
| | ⑧ | | | | 시각 | 나 만남 | 고마움 | 거울 속 나와의 만남 |
| (5) | ⑨ | 거울 | 나 | 밖/안 | 시각 | 나 감지 | 안도감 | 거울 속 나의 외로워진 사업 |
| | ⑩ | | | 안 | | 나 추측 | 외로움 | |
| (6) | ⑪ | 거울 | 나 | 안/밖 | 시각 | 나 인지 | 다행함 | 거울 속 나는 참나와 반대지만 닮음 |
| | ⑫ | | | | | -나 감지 | 섬섬함 | 거울 속 나와 교감하지 못함 |
| | ⑬ | | | 밖 | | | | |

이 연구에서는 위의 인지정보를 토대로 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인지적 작용을 고찰하려고 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인지정보는 텍스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준거가 되며,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구축하는 데 유의미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참고가 되는 인지정보는 위의 표에 표기된 항목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텍스트에 드러난 인지정보는 배경, 전경, 방향, 감각, 행위, 심리, 의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인지자료가 될 것이다.

3.1. 거울 속의 ‘나’ 인지

여기에서는 이상 「거울」의 인지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인지시학의 방법과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텍스트의 전반부는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를 보이면서 거울 속의 ‘나’를 인지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전경과 배경, 우세함의 인지시학적 개념과 사각기호의 도해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①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②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 (2) ③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④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 (3) ⑤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⑥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이오

텍스트의 (1)~(3)연은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의 ‘나’를 인지하고 있는 인지구조이며, 거울 배경에 거울속의 ‘나’가 전경으로 등장해서 현저함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의를 끄는 의소로 ‘소리’, ‘귀’, ‘손’이 우세함을 보이고 청각과 시각의 인지감각이 작용한다. 이러한 의소는 현실적 자아가 거울속 자아를 이항 대립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1)연 ①행에서 화자는 “거울속에는소리가없”다는 인지의미를 인지하며 ②행에서 참으로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적막감의 인지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형의 ‘소리’는 거울을 배경으로 해서 전경으로 드러나며, 텍스트의 전반적인 정조를 제시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듯 (1)연은 현실과는 다른 소리가 없는 거울 속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조용한 정조의 배경을 깔아주고 있다.

(2)연에서는 의사소통의 매개적 기능을 하는 신체기관 ‘귀’의 의소를 등장시켜 소통하지 못하는 두 자아의 인지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행에서 현실적 자아의 말을 듣지 못하는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 있다고 하면서 딱함의 인지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으로 귀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한 쌍을 지칭하는 데, 그 귀가 “두개나있”다고 강조하는 낯선 서술로 ‘귀’ 의소의 우세함과 듣지 못하는 인지상황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3)연에서는 거울 속의 ‘나’의 손은 ⑥행의 표현처럼 “악수를받을줄모르”고 “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라고 규정하며 ‘손’을 우세함으로 드러낸다. 거울에 나타난 사물은 물리적 반사 작용으로 대칭되게 비치는 현상일 뿐인데, 인지주체에게는 심리적 반응물로서 인지적 작용을 일으킨다. 현실적 자아 혹은 무의식의 자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합일하지 못하는 인지주체의 자아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그리하여 (2)연과 (3)연은 ‘귀’와 ‘손’의 의소가 다를 뿐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다. ‘귀’와 ‘손’의 의소가 자아의 신체 부위 중 현저하게 전경화되어 우세함(dominant)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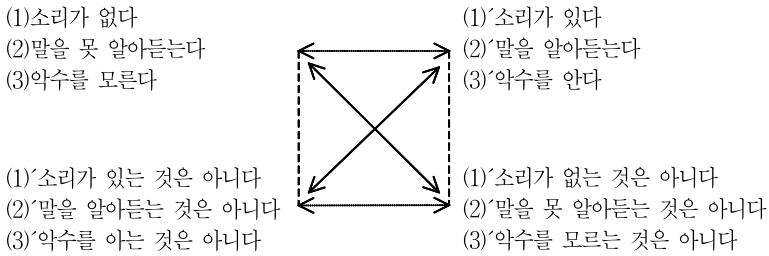
(1)~(3)연의 인지의미는 두 자아의 소통과 접촉의 부재를 전경으로 나타나는 의소의 현저함과 우세함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세함은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자질로서 일종의 ‘초(超)전경화된’ 전경이며, 이를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의 나머지 요소가 역동적으로 조직화되는 중심축이다.¹³⁾ 현실의 자아와 거울 속의 자아는 동일인이지만 거울에 보이는 형상은 반대라는 이항 대립적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 현상의 심층적 의미는 현실의 자아가 거울이라는 배경에 비쳐져 전경으로 현저하게 드러나니,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아이러니한 인지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거울’은 소리가 없는 세계를 배경으로 설정했으며, 텍스트 전반에 걸쳐 깔려있는 일련의 인지적 배경이 된다. 현실적 자아는 거울 속 초현실의 세계를 인지하며 그곳에 주의가 끌려 이끌리게 된 것이다. 현실의 자아와 거울 속 자아는 서로 역설적인 현존재로 인식된다. 현실적 자아는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의 자아는 왼손을 내미는 현상은 악수를 할 수 없는 인

13) Peter Stokwell, 위의 책, 37면.

지상행이며, 소리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접촉도 할 수 없다는 인지 설정이다. 여기에 기저해 있는 인지심리는 적막감, 딱함, 안타까움의 순차로 드러나며 텍스트 인지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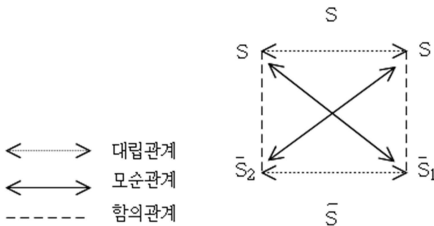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인지구조는 그레마스 사각기호(14)를 적용해서 텍스트 의미생성 행로를 구상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에서 드러난 심층적인 의미생성행로는 의미작용 체계, 내재적 역동성, 정신적 활동의 분석을 위해서도 적용된다. 텍스트 전반부 (1)~(3)연의 인지구조를 그레마스 사각기호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1)
- 거울 속의 '나' 인지

<그림 1>은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통해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의 자아를

14) 사각기호의 의미작용은 이접(disjunction)과 연접(conjunction)의 이중관계에 의해 S₁ 및 S₂로 연결되는 두 의소의 결합으로 S가 재정의 된다.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Greimas, A. J. *Du sens*, Seuil, 1970. 136~137면).



인지하게 되지만 말도 못 알아듣고, 악수도 모르는 낯선 자아를 인지하고 있는 인지적 작용의 의미론적 심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의미생성행로는 사각기호의 상단을 중심으로 좌우의 대립, 대각의 모순, 상하의 함의 관계를 주축으로 의미론적으로 드러난다. 텍스트 (1)~(3)연에 드러난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는 현실의 자아와 거울 속 자아의 대립적 구도를 보이며, 낯선 정조의 인지의미는 사각기호에 의해 의미론적으로 도해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은 사각기호의 의미생성행로에 나타난 텍스트의 인지의미를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실의 자아가 거울 속의 자아를 인지하는 인지심리의 심층적이고 중층적인 행로를 확인하게 한다. 사각기호에서 이항 대립적으로 해석되는 의미생성행로는 의미론적으로 문체 일탈의 양상을 보이며, 대립과 모순, 함의의 관계로 작용한다. 그 의미생성행로는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서술프로그램이다. 독자는 복잡다단한 인지심리의 심층적인 인지행로를 따라가 보면 현실의 자아와 거울 속 자아의 존재가 표층적으로 달리 보이는 존재이지만, 결국 심층적으로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를 유추하게 된다.

위와 같은 양태적 변환의 인지상황은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사각기호에 의해 발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⁵⁾ 텍스트의 의미 서술은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구상화되며, 사각기호를 통해 도해되는 의미생성행로는 텍스트의 인지의미와 그 의미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보여준다.

3.2. 거울 속의 ‘나’와의 관계 인지

텍스트의 전반부는 거울 속의 ‘나’에 대한 표상적인 인지였다면, 후반부에

15) 양태성 이론은 의미론과 논리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호학에서 서술 도식(schéma narratif)을 재공식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성 행로의 각 단계는 하나의 양태성의 획득이나 작동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양태 이론의 일반화는 양태적 행로를 기호학적 존재 양식의 행로라는 보다 일반적인 행로와 상동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차원을 포함한다(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275면).

서는 거울 속 ‘나’에 대해 더 깊게 인지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텍스트 후반부에 표상된 현실적 자아는 거울 속 자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인지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4) ⑦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⑧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 (5) ⑨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⑩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 (6) ⑪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⑫또꽤달았소
⑬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꽤섭섭하오

텍스트의 (4)~(6)연은 거울 속의 ‘나’가 전면에서 현저하게 전경으로 드러나 ‘나’의 인지에 대한 열망이 우세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실의 ‘나’와 거울 속의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인지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심리적 반영물 거울을 배경으로 해서 전경화된 내면적인 자아를 만나볼 수 있지만, 접촉해서 교감하지 못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내재되어 있다. 텍스트 전반부에 드러났듯이, 거울의 공간에 내면적 자아가 있다는 인지에서 심화되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와의 관계를 인지하게 된다는 인지의의미가 드러나 있다. 이렇듯 텍스트의 후반부는 텍스트의 인지적 배경 거울에 전경으로 나타난 ‘나’의 존재가 고정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화자는 거울 밖과 안으로 교차되는 시선으로 거울 속 자아와 현실의 자아와의 관계를 인지하면서 두 자아의 합일을 원하고 있다.

(4)연은 심리적 반영물 ‘거울’로 인해 ⑦행에서 “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역으로 거울로 인해 ⑧행에서 “거울속의나를만나보”는 인지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⑦행에서는 거울 속 자아와 접촉하지 못해 서운한 인지심리라면 ⑧행에서는 테스트의 배경인 심리적 반영

물 거울로 인해 전경으로 나타난 거울 속 자아를 만나볼 수 있어 고마워하는 인지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4)연에서는 거울의 양면성과 이중성을 표상하고 있다. 물리적 거울로만 보면 거울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하지만 거울 때문에 만져보지를 못한다는 설정이다. 그러나 거울을 텍스트의 배경인 심리적 반영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 반영물 속에 비친 전경의 ‘나’를 ‘참자아’로 이해한다는 것을 기저로 한다는 점이 유추된다. 그 이유는 심리적 반영물 거울에 비친 ‘나’ 혹은 ‘참자아’를 만져보지 못한다는 설정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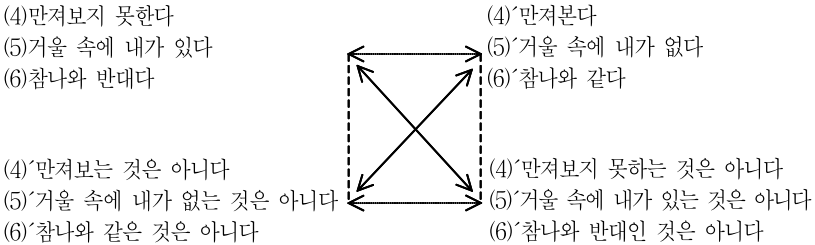
(5)연에서 화자는 반전으로 거울을 가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며, 역설적이게도 ⑨행에서는 가지지 않은 “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다고 말한다. 현실적 자아의 시선은 밖에서 안으로의 인지방향을 보이며 거울을 주시하고 있다. 현실적 자아는 거울 속의 자아를 감지하고 안도하는 인지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⑩행에서 현실적 자아는 잘 모른다면서 거울 속 자아를 보기에 “외로된사업에골몰할”거하고 추측하며, 거울 속 자아의 외로움의 인지심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 (6)연은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가 반대지만 닮았다는 다행함과 그러면서도 교감할 수 없는 섭섭함의 복합적인 인지심리를 표상하고 있다. 결국 현실적 자아는 거울 속의 자아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인지상황이다. ⑩행의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지만 ⑪행에서 “꽤닮았”다고 했으며, 그렇지만 ⑬에서는 거울 속 자아를 “근심하고진찰할수없”는 “씩씩”한 인지심리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6)연의 의미는 텍스트의 인지 의미를 요점적으로 표상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텍스트 후반부에서의 중심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울 속 자아가 외로된 무엇인가에 몰입한다고 파악한 것은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 자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인지상황으로 유추된다. 전반부의 표층적 인지의미에서 진전된 심층적 이해로의 관계 구도가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한 점은 현실적 자아가 참자아를 인지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 후반부에 현저하게 드러난 참자아를 인지하려는 인지심리는 서운

함, 고마움, 외로움, 다행함, 섭섭함의 순차로 표상되고 있다.

텍스트에 사용한 초현실주의의 방법은 인지주체의 내면 의식 탐구와 일상 세계의 인지상황을 마음대로 혹은 자동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자동기술법은 무의식적으로 나열해서 인지적 논리와 인과 없이 내면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의 인지된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2)

- 거울 속의 '나'와의 관계 인지

<그림 2>는 거울 때문에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지만 거울로 인해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볼 수 있고, 거울 속의 나와는 반대이지만 닮았다는 대립적 상황을 '나'를 현저함으로 부각시켜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적 자아 '나'는 거울을 가지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나'가 있으며, 거울 속의 '나'는 '참나와'는 반대이지만 많이 닮았다고 인지하는 역설적인 인지상황을 현저하게 표출하고 있다. 현실적 자아는 텍스트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반영물 거울을 통해서 거울 속의 자아를 인지하지만 물리적인 거울에 비친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볼 수 없는 인지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5)연 ⑨행의 내용이 주목된다. 현실적 자아가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항상 거울 속의 자아가 있다는 인지설정은 의미하는 바가 다층적이다. 그 의미는 거울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 반영

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맥락은 심리적 반영물 거울 속에 늘 존재하는 자아가 비친다는 인지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만들어지는 도식은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에서 작용하는 세밀한 기호작용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도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의미가 생산되거나 읽혀지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도식 도해를 통해서 텍스트에 드러난 현실적 ‘나’와 거울 속 ‘나’와의 관계 인지에 대해 의미생성과정을 중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 자아를 이해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미적 맥락으로 보인다. 현실적 자아도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근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인지상황이다. 결국 거울 속의 자아도 현실의 자아를 표상하고 있으며, 그 거울은 심리적 반영물로 작용하며 참자아의 인지심리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장을 정리하면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는 거시적, 미시적 시각으로 드러난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 인지구조 (1)과 (2)의 양상으로 구획된다. 인지구조 (1)은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 자아를 표상적으로 인지하는 인지상황이며, 인지구조 (2)는 내면적으로 인지하는 인지상황이다.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맥락상의 대립적 인지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텍스트는 이항 대립적인 인지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측면의 인지상황은 사각기호에 의해 이항대립적인 인지구조의 담화가 심층과 표층의 행로에 의해 선명하게 도해된다. 그것은 현실적 자아가 거울 속 자아를 이해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미적 맥락으로 보이며, 현실적 자아는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근심하고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거울 속의 자아도 현실의 자아를 표상하고 있으며, 그 거울은 심리적 반영물로 참자아의 인지심리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송효섭, 앞의 책, 4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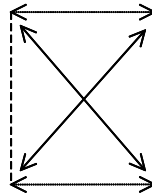
4. 자아의 다항 혼성적 인지지향

이상의 「거울」은 자아의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에서 나아가 다항 혼성적인 인지지향을 표상하는 텍스트 인지의미를 보이고 있다. 표층적으로 이항대립적인 구조이지만 심층적으로 다항 혼성적인 인지의미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생성의 과정은 그레마스 사각기호의 의미화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는 결국 하나의 자아이며 참자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은 다항 혼성적인 인지지향을 추구한다고 보여진다.

텍스트의 인지지향은 거울속의 ‘나’는 ‘참나’와는 반대라는 이항 대립적 인지, 한편 꽤 닮았다고도 보는 다항적인 인지가 혼성되어 있는 인지설정이 다. 인지주체 혹은 현실적 자아는 거울 속에 비친 초현실적 자아를 다항 혼성적인 인지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의 자아는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를 구축하고 있지만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면에서 다항 혼성적인 지향 의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아의 다항 혼성적 인지지향을 드러내는 자아의식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1) 소리가 없다
- (2) 말을 못 알아듣는다
- (3) 악수를 모른다
- (4) 만져보지 못한다
- (5) 거울 속에 내가 있다
- (6) 참나와 반대다

- (1) 소리가 있다
- (2) 말을 알아듣는다
- (3) 악수를 안다
- (4) 만져본다
- (5) 거울 속에 내가 없다
- (6) 참나와 같다



- (1)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 (2)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 (3) 악수를 아는 것은 아니다
- (4) 만져보는 것은 아니다
- (5) 거울 속에 내가 없는 것은 아니다
- (6) 참나와 같은 것은 아니다

- (1)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2)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 (3) 악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 (4)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5)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6) 참나와 반대인 것은 아니다

<그림 3> 자아의 다항 혼성적 인지지향

<그림 3>은 앞에서 살펴본 <그림 1>과 <그림 2>가 합체된 사각기호이며, 이항 대립적 인지구조가 다항 혼성적인 인지지향으로 확장되는 인지적 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 자아는 자신 안에 있는 다항 혼성적 지향의식을 함유하고 있는 자아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각기호는 좌우 방향의 대립, 대각선 방향의 모순, 상하 방향의 함의 관계로 해석되는 의미생성행로에 의해 텍스트의 다항 혼성적 인지지향을 표상하고 있다.

현실적 자아가 있는 바깥과 거울 속 자아가 있는 안은 피비우스 띠의 겉과 속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거울 속과 바깥의 방향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거울이라는 반사 물체에 비치는 형상은 방향이 다르면서도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는 원리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달리, 그 이면의 본질은 같다는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독자의 주의를 끄는 인지심리적 장치들 사용하여 전경과 배경 관계를 설정해서 그 인지적 작용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것이다.

텍스트는 낯선 인지상황을 제시하고, 독자는 비친숙화되고 정교화된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결국 텍스트에서 표상되는 인지지향은 자아의 다항 혼성적 양상을 다층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그 양상과 원리는 사각기호의 의미생성행로에 의해 심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로 독자는 텍스트에서 어떤 패턴이 다른 무엇보다 문학적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이상 「거울」에 대해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가 화해나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실의 자아가 거울 속 내면의 자아를 인지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인지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가 현상적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인지되지만, 그 내면을 인지적 맥락에서 유추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심층적으로 이해와 합일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 이유는 거울을 매개체로 보지 않고 심리적 반영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거울을 화자의 심리적 반영물로 설정해서 거울 속의 자아 혹은 내면적인 자아의 모습을 투사하는 화자의 중층적인 인지심리는 이해와 합일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생성행로는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양상은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 원리로도 이해가 가능해 보인다. 결국 텍스트에 표상된 심리적 반영물으로써의 거울은 참자아의 인지심리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거울이라는 배경에 참자아가 전경으로 비취는 설정에 의해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 자아의 심층적 이해와 합일에 도달하는 혼성적 인지지향으로 드러난다.

5. 맺음말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 「거울」의 초현실적 인지 작용을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해서 고찰하는 데 있었다. 사각기호의 의미생성행로를 통해 텍스트 의미화의 심층과 표층을 거쳐 담화 서술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해보았으며, 그 함의하는 인지의미를 도출해보았다.

텍스트는 인지심리학의 문체 일탈적 장치와 시야의 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논제에 의해 자아의 자아 초월적 인지기호가 작용하여 인지구조를 구축하고 인지지향으로 나아가는 인지체계를 표상하고 있었다. 그 인지의미는 텍스트의 표면과 이면 혹은 표층과 심층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의미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난해하고 실험적인 시정신의 근원이자 기반은 피비우스 띠와 같이 겉과 안이 이어져 있으면서도 상이하게 보이는 표현론적 관점의 시차이며, 그 함의하는 바는 의미론적 넓이와 깊이의 변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가능하게 된다.

배경으로 제시된 ‘거울’은 텍스트에 표상되는 심리적 반영물로 인지주체 화자의 복잡다단한 인지적 작용의 심리를 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텍스트의 인지구조는 자아의 이항 대립적 양상으로 드러나며, 인지구조의 합체에 의해 자아의 다항 혼성적인 인지지향으로 확장된다. 결국 텍스트의 인지지향

은 자아의 다항 혼성적 추구를 표상하고 있다. 그 양상과 원리는 그레마스 사각기호의 의미생성행로에 의해 심층과 표층을 거쳐 담화서술로 나타낼 수 있다. 화자는 자신 안에 있는 다항적 양상으로 치환되는 자아를 인지하고 혼성적으로 참자아를 인지하고 있다.

텍스트를 인지적으로 고찰한 과정은 이상의 자의식을 구현한 대표적인 시편을 통해 시인의 시의식과 시작법의 일면에 닿는 데 효과적이다.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주요 이론인 전경과 배경의 작용을 기저로 하는 주의, 문체 이탈 등의 인지심리학적 원리와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한 융합은 텍스트의 인지체계와 인지의미를 중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난해하고 실험적인 여타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심리적 반영물로 기능하는 텍스트에 제시된 ‘거울’의 속과 바깥은 피비우스 띠의 속과 겉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와 같다고 보인다. 텍스트에 표상된 ‘거울’의 속과 바깥이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거울’이라는 반사 물체에 비치는 형상은 방향이 다르면서도 그 본질은 같다는 원리이다. 그 의미화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달리 그 본질은 같다는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서

권영민, 『이상전집 1』, 태학사, 2013.

2. 논저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박권생, 『인지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6.

소필균, 「김춘수 「꽃」에 대한 그레마스 사각기호를 적용한 인지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6.

_____, 「정현중 「잎 하나로」에 나타난 아포리즘적 연술의 인지적 고찰—그
레마스 사각기호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2019.

송효섭, 『기호학』, 한국문화사, 2010.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지학적 이해』, 태학사, 2005.

Gerrard Steen·Joanna gaebiseu, 양병호 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
문화사, 2014.

José Luis Bermúdez, 신현정 역, 『인지과학』, 박학사, 2012.

Johannes Fehr, 최용호 역,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2002.

Margaret W. Matlin, 민윤기 역, 『인지심리학』, 2015, 박학사.

Peter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Ronald T. Kellogg, 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16.

Stephen K. Reed, 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CENGAGE Learning, 2012.

Vyvyvan Evans,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한국문화사,
2010.

Elena Semino, *Metaphor in Discourse*, Cambridge, 2008.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_____, Daniele McDowell, Ronald Schliefer, Alan Velie, *Structural
Semantic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_____. *Du sens*, Seuil, 1970.

_____. *Du sens II*, Seuil, 1983.

Reuven Tsur,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Poetics*, Sussex Academic Press, 2008.

【Abstracts】

A Cogni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reimas' Semiotic Square Model of 「Mirror」 by Lee, Sang

So, Pilgyun

None of the previous studies on 「Mirror」 by Lee, Sang used a cognitive perspective. The researcher considered that it is now time to conduct research from a cognitive point of view to meet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poem of a poet who represent self-awaren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the cognitive system by analyzing based on cognitive poetics and applying Greimas' semiotic square model. This will be a new method of analyzing unique cognitive structure of texts that show surrealistic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cognitive structure of text and moving toward cognitive orientation.

The 'mirror' represented in text is a psychological reflection and realistic self is reflecting the self in the mirror. 'Mirror' is the ground and 'myself' represented in the mirror is constructing a cognitive system for self-awareness by functioning as a surrealistic figure. The text is showing cognitive structure of binary oppositions of realistic self and the self in the mirror. It is showing hybrid cognitive orientation that tends to reach understanding and unity of true self based on cognitive structure. Narrator in the text recognizes 'self' in the mirror with binary opposite view, but is showing cognitive orientation that recognizes a relationship with 'myself' in the mirror and pursues interest and unity.

Inside and outside the 'mirror' that this study consider as

psychological reflection can be considered the same as the structure of inside and outside of Möbius strip connected as one. It is the attention of inside and outside of mirror being the same but appear differently. It is the attention that direction of shapes reflected on 'mirror,' a reflective object, are different but the essence is the same. It implies a philosophical meaning that the essence of inside human existence is the same unlike what is shown on the outside.

Key words : Lee, Sang, 「Mirror」, cognitive poetics, cognitive psychology, Greimas, semiotic square, figure, ground, attention, deviant style, surrealism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